

청소년자활지원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리질리언스

최 윤 정* · 이 시 연** · 권 현 진***

본 연구는 청소년자활지원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리질리언스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전국 청소년자활지원관 20개소를 대상으로 우편설문을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305부의 설문지가 수거되어 총 80%의 회수율을 나타냈다. 연구결과는 첫째, 리질리언스가 청소년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내재화 문제에는 내적통제소재, 가족응집력, 가족지지가 상호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외현화 문제에는 가족응집력과 가족지지가 상호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자활지원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적응을 위해서는 리질리언스에 초점을 둔 개입을 실시해야 한다. 둘째, 청소년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외적요인으로 나타난 사회적지지와 사회활동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장으로써 특히, 빈곤 청소년의 자활을 위해서는 청소년자활지원관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제어 : 청소년자활지원관, 가족갈등, 리질리언스

* 숙명여대 강사

** 서울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임강사

*** 인천대, 서울여대 강사

I. 문제제기

청소년 시기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며, 자율성과 독립성 등 다양한 발달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정상적인 발달과정에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부적응적인 상태에 놓이게 될 수 있다. Albers(2001)는 청소년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빈곤은 청소년의 안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성인기에 있어서 광범위한 영역에서 결핍을 예고한다고 보고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빈곤 청소년이 경험하는 불리한 사회·경제적 조건을 개선하고,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청소년자활지원관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1997년에 ‘청소년교실’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청소년자활지원관의 목적은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학 및 취업상담을 지원하고 빈곤 문화의 세습화를 방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자활지원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빈곤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빈곤 청소년은 일반가정 청소년보다 부정적인 환경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요소가 매우 높으며, 가정의 경제적인 빈곤은 청소년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제시되고 있다. 가족생태학모델(Mcloyd, 1998)에 따르면, 경제적 스트레스는 부모의 심리적 안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등 가족 구성원들간의 갈등의 유발로 역기능적인 가족구조를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 청소년자활지원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가족은 한부모 가정이 많으며, 부모와 자녀간의 갈등이 높고, 부부간의 불화가 있으며, 부적절한 부모역할을 한다고 제시하였고(이시연·박은미, 2004; 한복남, 2004), 이는 빈곤 가정의 특징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빈곤 가정의 청소년은 낮은 자아 존중감, 우울과 불안, 외적통제소재, 비행행동, 낮은 학업성취 등 적응상에 어려움을 보인다고 하였다(Goosby, 2003; Mcloyd, 1998).

이렇듯, 대부분의 연구들에서는 취약한 환경에 처한 청소년이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제시하며, 빈곤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면만을 부각해서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모든 빈곤 청소년이 부적응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청소년보다 더 성공적인 적응을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비슷한 환경에 놓여 있지만, 잘 적응하는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관심에 대한 이론적인 뒷받침을 제공한 것이 리질리언스 개념이다. 리질리언스란 위험 상황에서도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심리적으로 적응을 잘하고(Smith & Prior, 1995), 발달과업이나 사회적 기대를 성공적으로 다루며(Luthar & Zigler, 1991), 취약하지 않는 것(Kinard, 1998)으로 정의될 수 있다(최윤정·김혜련, 2001에서 재인용). 따라서, 기존의 취약한 계층에 대한 결핍중심 관점에서 강점중심 관점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 리질리언스 개념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청소년자활지원관을 이용하는 빈곤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인 부정적 인식과 그들에 대한 결핍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으로 관심의 초점을 이동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 박현선(1997)은 빈곤청소년이 높은 위험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청소년과 비슷한 학교적응유연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자활지원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적응상태를 알아보고,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으로서의 가족갈등과 보호요인으로서 리질리언스를 파악하고, 리질리언스가 적응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자활지원관 서비스의 이론적인 근거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문헌고찰

1. 청소년자활지원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적응

Meyer(1983)는 적응이란 일반적으로 개인과 환경 사이의 활발한 상호교환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개인이 자신의 욕구에 적합하도록 환경을 변화시키며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또한 맞춰나가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최윤정, 2004에서 재인용). Lazarus(1976)는 적응이란 개체와 환경간의 균형 있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행동과정이며 욕구좌절이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행동과정으로 보았다. 따라서 바람직한 적응이란 자신을 외부 환경의 욕구에 순응하여 변화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환경을 변화시키며 자신의 목표를 달성해 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적응은 어느 발달상에 있어서나 일어나는 문제이지만 다른 어느 시기보다 적응에 어려움을 유발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일이 많은 청소년기에 더 중요시되고 있다. 청소년기에 습득하고 형성한 적응양식은 그 후 일생을 통해 그의 적응기제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있어서 적응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한상철 외, 2003에서 재인용).

청소년자활지원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부분 수급권 대상자이거나 차상위 계층에 속한다. 강서청소년자활지원관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자활지원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빈곤으로 인해 기본적인 식생활 해결이 어렵거나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고 하였다(강서청소년자활지원관, 2003).

경제적 빈곤은 청소년의 인지적 기능, 학업 성취, 신체적 건강, 심리사회적 적응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안녕에 위협이 된다(Albers, 2001).

이시연과 박은미(2004)는 청소년자활지원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그들이 우울이나 불안을 경험하고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나타내고, 높은 공격성 등 적응상의 문제를 보인다고 하였다.

2. 위험요인으로서 가족갈등

위험요인이란 부적응적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영향을 보여주거나 추정할 수 있는 변수를 의미한다(Rolf & Johnson, 1990). 가정의 경제적 빈곤은 가족에게 생활의 어려움을 줄 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들에게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경제적 스트레스는 부모의 심리적 안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부모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어 부모-자녀 관계, 부부관계를 악화시켜 가족과정을 방해한다(Ge et al., 1992; Mcloyd, 1998). 이러한 부정적인 가족과정은 가족구성원간의 갈등을 증가시키고, 가족해체가 유발될 수도 있다.

Mcloyd(1998)는 가족생활 스트레스가 아동과 청소년에게 희생을 요구한다고 보고하였고, 다중적인 문제를 경험하는 가족들내의 아동이 하나의 위험요인만을 경험하는 가족내의 아동보다 적응상에 더 어려움을 보인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Mclanahan과 Sandefur(1994)는 한부모 가정에서 성장한 아동은 부모가 모두 있는 가정에서 성장한 아동에 비해 평균적으로 보다 덜 성공적이라고 보고하였다. 이혼에 대한 아동의 적응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Rodgers & Rose, 2002), 부모갈등, 보호자가 아닌 부모와의 접촉 감소 등이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 Elias 등(1996)은 약물남용과 다른 반사회적 행동 문제를 일으키는 청소년의 위험요인으로 가족불화와 갈등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가족내 스트레스 상황은 청소년의 사회적, 정서적 및 인지적 문제를 일으키는 주요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

청소년자활지원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대부분 가족갈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청소년자활지원관에 관한 사례연구(이시연·박은미, 2004)에 따르면, 조사대상자는 부모의 이혼, 가출, 사망 등으로 인해 모두 한부모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고, 집안에서의 역할 과중, 부모와의 갈등, 방임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자녀 갈등, 부부불화 등 가족간의 갈등이 청소년자활지원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위험요인이라 할 수 있다.

Raschke(1979)는 가족 체계내의 갈등은 자기개념과 부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제시하였고, Norwicki(1982)는 가족갈등은 자녀의 외적통제감을 증가시키며, 낮은 가족응집력은 공격성(Fowler, 1981), 불안(Forman & Forman, 1981), 우울(Redrick et al., 1982)과 낮은 자존감(Cooper et al., 1983)을

포함하는 다양한 부정적인 결과와 관련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역기능적이고 갈등적인 가족은 자녀의 불안이나 우울의 원인이 되고 비행행동이나 공격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중요한 위험요인이다.

3. 리질리언스

위험노출과 문제행동 사이의 관계성에 관한 연구에서 이들 위험들 사이에서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보호요인에 관한 증거들이 제시되었다(Dumount & Provost, 1999; Rutter, 1987). Pollard 등(1999)은 보호요인은 위험의 감소를 시도하는 것보다 리질리언스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아동의 강점을 축적하는데 개입의 초점을 두는 것이 위험요인을 감소하는데 초점을 두는 것보다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된다고 하였다.

리질리언스를 바라보는 관점은 학자마다 다양하다. Kashubeck와 Christensen(1992)는 스트레스 상황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기능을 이끌어내는 개인의 적응적 반응이 리질리언스라고 하였다. Nash와 Bowen(1999)은 위험요인이 있음에도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고 적응기능을 유지하는 능력이나 기능을 회복하는 것으로서 정의하였다. 최윤정과 김혜련(2001)은 리질리언스는 위험한 상황에 개인이 노출되었을 때 발생하는 것이며, 개인이 가진 특성과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차이를 보임으로 개인과 환경의 맥락에 의한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하였다.

리질리언스에 관한 연구들은 개인이 환경의 도전이나 위협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요인에 초점을 두고 있다(Masten, Best & Garmezy, 1990). Garmezy(1991)는 불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적응을 이끌어내는 요인들을 확인하였다. 개인적 요인들로는 새로운 상황을 격려하는 반응성, 응답성, 활동 수준, 가족 요인들로는 가족내의 높은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부모나, 다른 성인의 감독, 따뜻함, 응집력을, 지지적 요인들로 가족 구성원 이외의 학교, 교회, 사회 서비스 기관들내의 성인과의 지지적인 관계를 제시하였다. Werner(1986)는 빈곤, 부모의 병리, 가족 해체를 경험하고 있는 고위험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적응을 이끌어내는 보호요인으로 내적요인과 외적요인을 제시하였다. 기능적으로 잘 적응하는 청소년들의 내적인 요인으로는 보호자와의 애착과 자율성, 새로운 상황에 응답하

는 경향, 내적 통제소재, 긍정적인 자기개념 등을 제시하였다. 외적인 요인으로는 부모가 정서적인 지지를 제공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이 긍정적인 적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Turner(2001)는 리질리언트한 개인은 유머, 사명, 의사소통 기술, 지적능력, 자기효능감, 높은 대인관계 능력, 독립심을 가지고 있으며 부모나 친척이 아닌 긍정적인 성인과의 지속적인 관계는 리질리언스를 창조하고 향상시킨다고 하였다. 또한, 다른 많은 연구들에서 높은 위험에 처한 자녀 사이의 긍정적인 적응과 관련된 보호변수로 가족응집력, 부모와의 애착, 사회적지지, 내적 통제소재, 부모감독, 자기수용을 강조하였다(Garmezy, 1991; Jones & Houts, 1992; Tweed & Ryff, 1996; Werner, 1986).

본 연구에서는 Egelans 등(1993)과 최윤정과 김혜련의 연구에서 제시한 리질리언스 관점으로서 개인과 환경의 맥락에 의한 생태학적인 관점을 취하였다. 그 이유는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한바 리질리언스는 위험한 상황에 개인이 노출되었을 때 발생하는 것이며, 개인이 가진 특성과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차이를 보임으로 개인과 환경의 맥락에 의한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Garmezy(1991)와 Werner(1993)와 Turner(2001)들이 확인한 리질리언스 요인을 바탕으로 개인 내적인 요인, 가족요인, 외적인 요인으로 나누었다. 구체적으로, 개인 내적인 요인은 자기수용과 내적 통제 소재, 가족요인은 가족응집력, 외적인 요인은 가족, 친구, 의미있는 타자의 사회적 지지와 사회활동 참여여부로 구성하였다.

Kliwer와 Sandler(1992)는 청소년의 내적 통제소재와 자기수용도가 높은 경우 스트레스를 조절하여 우울과 불안과 비행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Tweed와 Ryff(1991)는 높은 위험에 있는 자녀도 긍정적인 가족 경험을 하는 것이 보호요인이 되고 특히, 가족응집력은 부정적인 영향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적절한 사회적 지지는 긍정적인 적응과 관련되어 있음을 많은 연구들에서 제시하고 있다. Dumont와 Provost(1999)는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를 완충해주고, 질병으로부터 회복되는 것을 도와준다고 하였다(Rsarason et al., 1985). Werner(1986)와 Garmezy(1991)와 Wolin과 Wolin(1993)은 교회, 학교 또는 다른 지역사회 자원을 통해 타인의 지지를 받는 것이 긍정적인 적응 결과에 공헌한다고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개인의 발달과 사회화에 도움을 준다. 특히, 청소년들이 그러한 활동에 참여하게 되면, 자아존중감과 자기통제감의 증가를 가

저오게 되고 결국, 행동문제의 발생률을 저하시킨다고 하였다(Dumont & Provost, 1999).

따라서, 이러한 리질리언스들은 청소년의 적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보호요인이 될 수 있다. Kirby와 Fraser(1997)는 리질리언스가 위험요인의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개별적인 완충효과를 한다고 주장하였다. Rutter(1987)는 보호적 메카니즘은 부적절한 발달 결과를 이끄는 위험 환경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자활지원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리질리언스 정도를 파악하고, 리질리언스와 적응과의 관계와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청소년자활지원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이다. 2004년 10월 현재 전국의 청소년자활지원관은 총 25개소이나 5개관은 2004년 8월에 개관하여 아직 구체적인 사업을 전개하고 있지 못하여 본 연구에서는 제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질적으로 전국 청소년자활지원관 전체를 조사했다고 볼 수 있다.

정확한 설문을 위하여 전국 청소년자활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각 기관의 동의와 설문지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설문지 배포시 전화를 통하여 다시 한번 협조를 요청하였다. 2004년 10월 4일부터 2004년 10월 14일까지 우편발송 및 반송우편을 이용하여 배포하였다. 설문지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전화통화를 하였다. 그 결과 총 380부를 배포하여 305부(80%)가 회수되었다. 그중에서 부정확한 응답을 한 5부는 제외하고 총 300부를 가지고 자료를 분석하였다.

2. 변수의 측정 및 신뢰도

1) 심리정서적 적응(내재화문제) 및 행동 적응(외현화문제)

이 척도는 Achenbach(1991)가 청소년들의 심리정서적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미국판 아동, 청소년 행동 평가 척도(Child Behavior Check List)를 토대로 오경자 등(1998)이 우리나라 청소년에게 적합하도록 수정한 척도이다. CBCL은 아동 및 청소년기의 사회적 적응 및 정서, 행동문제를 평가하는 유용한 임상적 도구이며, 현재 미국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번역 표준화되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적응의 하위요인으로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를 사용하였고, 내재화 문제는 사회적 위축 9문항, 우울·불안 15문항으로 외현화 문제는 비행 12문항, 공격성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내적 일관성법을 사용하였고 그 결과 Cronbach's α 값이 사회적 위축 .78, 우울·불안 .86, 비행 .86, 공격 .90으로 나타나 척도의 신뢰도가 확보되었다.

2) 개인요인

① 자기수용

자기수용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조학래(1996)가 개발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한 자아정체성 척도 중에 하위척도인 자기수용 4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값이 .67로 나타나 신뢰도에 문제가 없었다.

② 내적통제소재

내적통제소재를 알아보기 위해 Rotter(1966)의 귀인양식검사 일부인 통제부위신념 중 내적통제소재에 관한 10문항을 사용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박영신 외(1977)가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이 .88로 나타나 신뢰도가 확보되었다.

3) 가족요인

가족갈등과 가족응집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Moos(1989)가 개발한 FES (Family Enviroment Scaled)를 사용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김소야자

(1982)에 의해서 번안되고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응집력 9문항과 가족갈등 9문항을 사용하였다.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이 가족갈등 .60, 가족응집력 .76으로 척도의 신뢰도에 문제가 없었다.

4) 외적요인

① 사회적지지

사회적 지지를 알아보기 위해 Zimet, Dahlem, Zimet과 Farly(1988)이 고안한 다차원 지지척도를 사용하였고, 가족 4문항, 친구 4문항, 의미있는 타자 4문항으로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이 .92로 나타났다.

② 사회활동만족도

사회활동만족도는 Durmont 등(1999)이 개발한 척도로서 종교, 지역사회, 학교에서 참여하는 활동 등으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 인구사회학적 요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질문은 성별, 나이, 학년, 동거가족, 부모의 교육정도, 부모의 직업, 가족의 경제력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 과정(coding)과 오류 검토작업(data cleaning)을 진행한 후 SPSS 12.0 package를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 기술통계, t검증을 실시하였고, 가족갈등과 리질리언스 요인이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리질리언스 요인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족갈등과 리질리언스 요인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우선 독립변인들을 센터링²⁾하고, 센터링 변인들을

2) 변인들을 센터링하는 것은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이다(박광배, 1999).

서로 곁에서 상호작용함을 만들었다. 독립변인과 상호작용함을 위계적으로 회귀시켜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청소년자활지원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n=300)

항목	빈도	백분율
성별	남	37.3
	여	62.7
학교급별	중학교	41.0
	일반계 고등학교	11.7
	비일반계 고등학교	43.0
	기타	4.3
학년	중1	11.7
	중2	17.0
	중3	12.3
	고1	15.0
	고2	18.3
	고3	20.3
	기타	5.0
가족구조	친부모	59.0
	계부모	7.6
	한부모	22.0
	기타	11.0
경제적수준	상	2.7
	중상	6.3
	중	36.0
	중하	35.7
	하	17.3

성별로는 여자 188명(62.7%), 남자 112명(37.3%)으로 여자 청소년의 청소

년자활지원관 이용이 남자 보다 활발한 것으로 보여진다. 학교급별은 중학교 재학 123명(41%), 비일반계고등학교 재학이 129명(43%)으로 분포되어 있어 주 이용자가 중학생과 비일반계고등학생임을 알 수 있었다. 학년별로는 고등학교 3학년이 61명(20.3%), 고등학교 2학년이 55명(18.3%)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조는 양친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형태가 177명(59.0%)으로 나타났고, 가족구조의 결손이 있는 경우로는 한부모 가족이 66명(22.0%), 계부모 가족이 23명(7.6%)으로 나타났고, 기타 33명(11%)에는 조손가정, 친척집에 거주, 생활시설 거주 등이 포함되어 있다. 결손가정이 40%에 이르는 것은 청소년자활지원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이 경험하는 주요 문제가 가족해체라는 선행연구(이시연·박은미, 2004)와도 일치한다. 조사대상자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경제적 수준은 중이 108명(36.0%), 중하가 107명(35.7%)으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하가 52명(17.3%)으로 조사되었다.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경제적 수준이 중 이하가 대다수(89%)로 나타난 점은 청소년자활지원관이 빈곤 청소년의 자활을 목적으로 진로지도 중심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점과 관련됨을 알 수 있다.

2. 청소년자활지원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적응관련 요인

청소년자활지원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적응관련 요인의 주요 특성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청소년의 적응면을 살펴보면, 내재화 문제 점수(1.69)가 외현화 문제(1.48)보다 좀더 높게 나타났다. 내재화 문제에서 우울·불안(1.67)보다 사회적 위축(1.72)이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외현화 문제에 있어서는 공격성(1.55)이 비행(1.35)보다 높게 나타났다.

리질리언스 측면을 살펴보면 개인 요인에 해당되는 자기수용과 내적통제소재는 각각 2.98, 3.17로 나타났고, 가족 요인으로는 가족응집력이 1점 만점에 .44로 조사되었다. 사회적 요인은 사회적 지지와 사회활동만족도로 나누어 보았고, 사회적 지지에서는 친구지지가 가장 높고(3.64), 다음으로 타인지지(3.60), 가족지지(3.43)의 순으로 나타났고, 사회활동만족도는 2.64로 나타났다.

<표 2> 청소년자활지원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적응관련 요인

요인		최대값	최소값	평균	표준편차
적응	내재화문제	2.74	1.00	1.69	.37
	사회적위축	2.89	1.00	1.72	.40
	우울·불안	2.93	1.00	1.67	.40
	외현화문제	2.56	1.00	1.48	.33
	비행	2.50	1.00	1.35	.34
	공격성	2.80	1.00	1.55	.37
가족갈등		.56	.00	.16	.15
리질리언스	자기수용	5.00	1.00	2.98	.80
	내적통제소재	4.00	1.20	3.17	.58
	가족응집력	.75	.00	.44	.21
	사회적지지	5.00	1.17	3.56	.76
	친구지지	5.00	1.25	3.64	.86
	가족지지	5.00	1.00	3.43	.87
	타인지지	5.00	1.00	3.60	.92
	사회활동만족도	4.00	.00	2.64	.73

성별에 따른 적응관련 요인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 지를 비교해보고자 t검증을 실시하여 <표 3>에 제시하였다. 남녀 청소년 집단간에는 외현화 문제, 사회적지지, 사회활동만족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남자가 여자보다 비행문제가 높게 나타나고, 친구지지나 타인지지, 사회활동만족도는 좀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남자 청소년은 여자보다 외현화 문제의 위험이 증가한다고 제시한 것(Fagot, 1995)과 같은 결과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내재화 문제에서는 성별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보다 우울 위험이 더 높고(Garrison et al, 1990; Hankin et al., 1998), 사회화 경험에 있어서 성역할이 여자 청소년의 우울 위험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한다(Obeidallah, Mchale & Silbereisen, 1996)는 선행연구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은 청소년자활지원관을 이용하는 여자 청소년들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특성과 관련되는 것으로 고려해 볼 수 있겠다.

<표 3> 성별 적응관련 요인 차이

요인		남(n=112)		여(n=188)		t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적응	내재화문제	1.69	.38	1.69	.36	-.13
	사회적위축	1.75	.42	1.70	.38	.84
	우울·불안	1.65	.41	1.69	.40	-.72
	외현화문제	1.51	.35	1.46	.31	1.16
	비행	1.42	.35	1.32	.32	2.46*
	공격성	1.56	.40	1.54	.35	.40
가족갈등		.15	.15	.17	.16	-.69
리질리언스	자기수용	3.05	.87	2.93	.75	1.21
	내적통제소재	3.18	.57	3.16	.59	.36
	가족응집력	.45	.21	.44	.21	.44
	사회적지지	3.48	.81	3.61	.73	-1.46
	친구지지	3.50	.87	3.72	.84	-2.25*
	가족지지	3.47	.87	3.41	.88	.572
	타인지지	3.46	.94	3.69	.89	-2.11*
	사회활동만족도	2.47	.83	2.75	.65	-2.87*

*p <.05

<표 4>는 학교급별에 따른 적응관련 요인의 차이를 비교해 보고자 t검증을 실시한 결과이다. 일반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과 비일반계 고등학교 재학생 및 중퇴자 집단을 비교한 결과, 내재화문제와 사회적지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비일반계 청소년이 일반계 청소년보다 사회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사회적지지 특히, 친구지지 및 타인지지는 보다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비일반계 학생들은 일반계 학생들 보다 열등한 조건으로 입학하게 되고, 비일반계 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으로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고 다른 사람과의 자연스런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도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고 제시한 것(장영숙에서 재인용, 2001)과 같은 결과이다.

<표 4> 학교급별 적응관련 요인 차이

요인		일반계 (n=35)		비일반계 (n=143)		t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적응	내재화문제	1.61	.32	1.72	.38	-1.62
	사회적위축	1.59	.33	1.76	.42	-2.58*
	우울·불안	1.62	.37	1.70	.39	-1.02
	외현화문제	1.39	.31	1.50	.34	-1.63
	비행	1.28	.28	1.38	.37	-1.45
	공격성	1.45	.37	1.56	.38	-1.54
가족갈등		.11	.14	.16	.15	-1.88
리질리언스	자기수용	3.03	.82	2.90	.76	.90
	내적통제소재	3.27	.42	3.16	.58	1.29
	가족응집력	.45	.22	.44	.21	.22
	사회적지지	3.90	.57	3.49	.70	3.19**
	친구지지	4.02	.65	3.56	.79	3.55**
	가족지지	3.66	.76	3.37	.81	1.92
	타인지지	4.02	.73	3.54	.87	2.97**
	사회활동만족도	2.72	.71	2.56	.78	1.02

*p < .05, **p < .01

3. 청소년 적응에 있어서 리질리언스의 조절효과

1) 청소년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

가족갈등과 리질리언스 요인이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먼저, 내재화 문제, 외현화 문제에 관한 회귀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F값이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VIF계수가 2이하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으며, 잔차의 독립성에도 d통계치가 1.83으로 나타나 문제가 없었다.

먼저, 가족갈등과 리질리언스 요인이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를 설명하는 정도는 37.1%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자기수용($\beta = -.458$), 친구지지($\beta = -.196$), 가족갈등($\beta = .181$),

가족응집력($\beta = -.149$)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가족갈등이 높고, 청소년의 자기수용, 가족응집력, 친구지지가 낮으면 청소년들은 내재화 문제를 겪을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가족갈등이 높으면 청소년들이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고(Elias et al., 1996), 가족응집력이 낮으면 불안(Forman & Forman, 1981)해지고 우울해 질 수 있다는 것(Redrick et al., 1982)과 같은 결과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가족갈등보다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에 자기수용과 친구지지가 상대적 영향력이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가족갈등이 있어도 자기수용 정도와 친구지지가 높으면 내재화 문제가 어느정도 감소 될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표 5> 가족갈등, 리질리언스 요인이 청소년 적응에 미치는 영향

요인		내재화 문제		외현화 문제		
		β	t	β	t	
가족갈등		.181	3.683***	.313	5.808***	
리 질 리 언 스	자기수용	-.458	-9.654***	-.172	-3.318**	
	내적통제소재	-.048	-.816	-.304	-4.721***	
	가족응집력	-.149	-2.572**	-.072	-1.134	
	사회적 지지	친구지지	-.196	-2.377*	-.005	-.051
		가족지지	.085	1.310	-.168	-2.946*
		타인지지	-.004	-.052	.023	.264
	사회활동만족도	-.069	-1.428	-.111	-2.082*	
R2		.388		.269		
수정된 R2		.371		.248		
F		23.067***		13.356***		

*p < .05, **p < .01, ***p < .001

다음으로,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에 가족갈등과 리질리언스 요인이 설명하는 정도는 24.8%로 나타났다.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가족갈등($\beta = .313$), 내적통제소재($\beta = -.304$), 자기수용($\beta = -.171$), 가족지지($\beta = -.168$), 사회활동만족도($\beta = -.111$)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에 가족갈등이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가족갈등이 반사회적 문제행동과 같은 외현화 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과 일치하는 연구결과이다(Elias et al., 1996).

이와 같이 청소년의 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알아본 결과, 청소년의 가

족갈등은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자기수용, 가족응집력, 사회적 지지는 내재화 문제 또는 외현화 문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청소년의 적응과 관련된 리질리언스 변인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Garmezy, 1991; Jones & Houts, 1992; Tweed & Ryff, 1996; Werner, 1986). 또한 사회활동만족도가 낮을수록 청소년들은 외현화 문제를 겪고 있어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청소년들의 비행과 공격성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

2) 청소년 적응에 있어서 리질리언스의 조절효과

청소년 적응에 있어서 위험요인인 가족갈등은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반면 리질리언스 변인들인 자기수용, 내적통제소재, 가족응집력, 가족지지, 친구지지는 청소년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청소년 적응에 대한 리질리언스 요인의 조절효과를 검증해보았다.

그 결과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에 있어서 조절효과가 검증된 요인으로서는 개인적 요인인 내적통제소재, 가족요인인 가족응집력, 외적요인인 가족 지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먼저,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에 있어서 내적통제소재의 조절효과를 알아본 결과 주효과($\beta = -.162$)와 상호작용효과($\beta = .116$)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가족응집력의 조절효과는 주효과($\beta = -.289$)와 상호작용효과($\beta = .171$)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족지지의 조절효과는 주효과($\beta = -.188$)와 상호작용효과($\beta = .186$)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6> 내재화에 대한 내적통제소재, 가족응집력, 가족지지의 조절효과

요인		β	t
1단계	가족갈등	.289	5.239***
	내적통제소재	-.153	-2.772**
2단계	가족갈등	.286	5.220***
	내적통제소재	-.162	-2.949**
	가족갈등×내적통제소재	.116	2.133*
R2		.135	
수정된 R2		.126	
R2 변화량		.013*	
F		15.433***	
1단계	가족갈등	.223	3.962***
	가족응집력	-.272	-4.821***
2단계	가족갈등	.242	4.342***
	가족응집력	-.289	-5.188***
	가족갈등×가족응집력	.171	3.234**
R2		.193	
수정된 R2		.185	
R2 변화량		.029**	
F		23.616***	
1단계	가족갈등	.269	4.799***
	가족지지	-.175	-3.119**
2단계	가족갈등	.296	5.320***
	가족지지	-.188	-3.410**
	가족갈등×가족지지	.186	3.444**
R2		.161	
수정된 R2		.153	
R2 변화량		.034**	
F		18.994***	

*p < .05, **p < .01, ***p < .001

즉, 내적통제소재, 가족응집력, 가족지지는 가족갈등 수준과 상관 없이 내재화 문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가족갈등으로 인해 내재화 문제를 경험하는 경우 내적통제소재, 가족응집력, 가족지지가 높으면 내재화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내적통제소재, 가족응집력, 가족지지는 직접적, 간접적으로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를 완화시켜주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내적통제소재, 가족응집력, 가족지지는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에 대한 조절효과를 하는 리질리언스 변인임이 확인되었다. 이는 청소년의 내적 통제소재가 높으면 우울과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고(Kliewer & Sandler, 1992), 가족응집력은 부정적인 영향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제시한 연구(Tweed & Ryff,

1996)와 같은 결과이다.

결과적으로,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에 있어서 자기수용과 친구지지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만, 조절변수로서의 역할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내적 통제소재, 가족응집력, 가족지지는 직접적인 영향도 주고 조절변수로서의 역할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Dumont와 Provost(1999)가 제시한 연구결과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사회활동 참여가 청소년의 내재화문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에 있어서 조절변인으로서 가족요인인 가족응집력, 외적요인인 가족 지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에 있어서 가족응집력의 조절효과를 알아본 결과 주효과($\beta = -.186$)와 상호작용효과($\beta = .097$)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가족지지의 조절효과 역시 주효과($\beta = -.085$)와 상호작용효과($\beta = .147$)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가족응집력, 가족지지는 가족갈등 수준과 상관 없이 외현화 문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가족갈등으로 인해 외현화 문제를 경험하는 경우 가족응집력, 가족지지가 높으면 외현화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가족응집력, 가족지지는 직접적, 간접적으로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를 완화시켜주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가족응집력, 가족지지는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에 대한 조절효과를 하는 리질리언스 변인으로서 확인되었다.

<표 7> 외현화에 대한 가족응집력, 가족지지의 조절효과

요인		β	t
1단계	가족갈등	.321	5.714***
	가족응집력	-.176	-3.131***
2단계	가족갈등	.331	5.897***
	가족응집력	-.186	-3.306***
	가족갈등 $\times$ 가족응집력	.097	1.825*
R ²		.181	
수정된 R ²		.173	
R ² 변화량		.009**	
F		21.797***	
1단계	가족갈등	.361	6.506***
	가족지지	-.074	-1.339
2단계	가족갈등	.382	6.893***
	가족지지	-.085	-1.542
	가족갈등 $\times$ 가족지지	.147	2.725**
R ²		.170	
수정된 R ²		.162	
R ² 변화량		.021**	
F		20.257***	

*p < .05, **p < .01, ***p < .001

결과적으로,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에 있어서 자기수용과 내적통제소재, 사회활동 만족도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만, 조절변수로서의 역할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응집력, 가족지지는 직접적인 영향도 주고 조절변수로서의 역할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지지의 경우는 주효과보다는 조절효과가 더 크게 나타남에 따라 가족갈등이 청소년의 심각한 외현화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약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보호효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V. 결론 및 함의

1.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자활지원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적응과 적응에 영향을 미

치는 위험요인으로서의 가족갈등과 보호요인으로서의 리질리언스 요인을 파악하고, 리질리언스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을 두었고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자활지원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일반적인 특성으로는 여자 청소년이 62.7%로 남자 청소년보다 많았고, 중학교와 비일반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들이 대부분이었으며, 학년분포에서는 고등학교 2-3학년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이는 청소년자활지원관에서 진로에 관련된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가족구조에서는 양친부모가 59%였고, 나머지 41%의 청소년들은 한부모나 계부모와 거주하거나, 조손가정이거나,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로 나타나 가족의 구조적 결손을 경험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주관적 경제수준에 대해서는 중이하로 대답한 경우가 전체의 89%에 해당하고 있다.

둘째, 청소년자활지원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적응관련 요인을 살펴본 결과, 외현화 문제보다는 내재화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고, 내재화 문제 내에서도 우울·불안보다는 사회적 위축의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현화 문제에서는 비행보다는 공격성이 높았다.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에 비해 비행정도가 높게 나타났고, 여자 청소년은 친구 지지와 타인지지가 높게 나타났고 사회활동에 대해서도 여자 청소년의 만족도가 높았다. 학교급별에서는 일반계에 재학중인 청소년에 비해 비일반계에 재학중인 청소년이 사회적 위축이 높게 나타났고, 사회적 지지는 낮게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 적응의 위험요인으로서 가족갈등이 내재화문제와 외현화문제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보호요인인 리질리언스는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재화 문제에는 자기수용, 가족응집력, 친구지지가, 외현화 문제에는 자기수용, 내적통제소재, 가족지지, 사회활동만족도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셋째, 리질리언스가 청소년 적응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검증해 본 결과, 내재화문제와 외현화 문제에 가족응집력, 가족지지가 조절기능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고, 내적통제소재는 내재화 문제에만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족갈등이 청소년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조

절해 주는 변수로서 내적통제소재, 가족응집력, 가족지지가 검증되었다.

2. 함의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계 청소년에 비해 비일반계 청소년은 사회적 위축이 심하고, 사회적지지 기반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개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손치훈과 박미란(2003)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자활지원관 실무자들은 우선 개입 대상으로 실업계 고등학생과 중학생을 선정하고 있음으로 비일반계 고등학교 대상자들을 위한 서비스의 장으로 적합하리라 본다. 또한, 고등학교 2,3학년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진로 및 취업지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적당하리라 본다. 따라서, 현재 청소년자활지원관에서 진로중심의 개입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타당한 목표설정이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이러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

둘째, 가족갈등이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 가족체계개입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이 또래집단과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는 하지만 가족은 여전히 그들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Goosby, 2003). 본 연구 결과에서도 입증된 바와 같이, 청소년자활지원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 가족의 구조적 결손이 많이 나타났고, 부모-자녀 갈등, 부부불화 등 가족간의 갈등이 높게 보고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가족체계개입이 빠른 시일안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리질리언스가 청소년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검증됨에 따라 리질리언스를 높일 수 있는 개입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자기수용과 내적통제소재를 증가시킬 수 있는 개입방법으로 자존감향상프로그램, 자기주장훈련, 문제해결기술, 대처능력 향상 프로그램 등이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리질리언트한 청소년들은 가족갈등 상황에서 자신을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이 높고, 외부에서 건강한 모델링을 찾는다(Norman, 2000)고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타인(교사, 친구의 부모, 종교지도자 등)을 통하여 건강한 모델링이 가능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

는 것이 유용하리라 본다.

넷째,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에 친구지지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친구지지를 증가시킬 수 있는 또래집단 중심의 활동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의 취업이나 관심사와 연관된 동아리 활동은 친구지지를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에는 사회활동만족도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Norman(2000)은 사회서비스 기관들은 학교체계보다 개인이나 가족체계의 개입이 더욱 용이하다 제시하였다. 따라서 사회서비스 기관인 청소년자활지원관은 청소년과 그 가족체계에 개입하기 용이하며, 청소년들의 사회활동을 제공하고 지원하는 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주요한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청소년자활지원관을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서 리질리언스가 확인되었고, 가족갈등이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완화시켜주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청소년자활지원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개입함에 있어서, 결핍중심 관점보다는 강점관점을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강화시켜주어 리질리언스를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청소년자활지원관이 빈곤 청소년의 자활을 위한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적인 센터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인력 및 예산, 사업내용 등에 있어서 개선을 필요로 한다. 즉, 사례관리 방법과 같은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실천방법론에 기초한 개입을 활성화함으로써 빈곤 청소년을 위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부족한 예산이나 인력에 대한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법적·제도적 장치를 개선함으로써 청소년자활지원관의 정책적 위치와 정체성을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청소년자활지원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리질리언스 요인들을 검증하고, 청소년의 적응에 있어서 리질리언스의 조절효과를 검증함으로써, 리질리언스가 위험요인에 대한 완충효과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론에 대한 실증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향후에는 청소년자활지원관을 이용하는 청소년과 일반청소년과의 비교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

참 고 문 헌

- 강서청소년자활지원관(2003). 임상사례집 .
- 박광배(1999). 변량분석과 회귀분석 . 서울: 학지사.
- 박현선(1997). 빈곤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 .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손치훈·박미란(2003). 청소년자활지원관 운영실태 조사보고서-빈곤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자활지원관의 발전방향. 자활정보센터.
- 오경자·이혜련·홍강의(1998). 한국판 CBCL의 문제행동 중후군 척도 재구성을 위한 연구. 서울의대 정신의학, 제23권, pp.52-54.
- 이시연·박은미(2004). 청소년자활지원관에서의 사례관리 적용과정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제6권 제2호, pp.69-85..
- 장영숙(2001). 실업계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스트레스 수준과 문제행동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윤정(2004). 아버지의 문제음주와 청소년 자녀의 적응: 부모역할과 부모와의 애착의 매개역할.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윤정·김혜련(2001). 알코올 중독자 가정 자녀의 리질리언스에 관한 소고. 한국알코올과학회지, 제2권 제2호, pp.35-40.
- 한복남(2004). 수급권가정 청소년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상철 외(2003). 청소년 문제행동-심리학적 접근-. 서울: 학지사.
- Achenbach(1991). *Handbook of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N.Y.: Plenum.
- Albers, A. B.(2001). *Poverty, social context and children's mental health across the early life cours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Virginia.
- Cooper, M. L. & Shaver, P. R.(1983). Attachment styles, emotion regulation, and adjustment in adolescence, *Journal of Personality*

- and Social Psychology*, Vol. 74(5), pp.1380-1397.
- Dumont, M. & Provost, M. A.(1999). Resilience in Adolescents: Protective role of social support, coping strategies, self-esteem, and social activities on experience of stress and depress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28(3), pp.343- 363.
- Fagot, B. I.(1995). *Handbook of parenting: Parenting boys and girls*.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
- Forman, S. G. & Forman, B. D.(1981). Family environment and its relation to adolescent personality factor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Vol. 45, pp.163-167.
- Fowler, P. C.(1982). Factor structure of the family environment scale: Effects of social desirability,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 38, pp. 285-292.
- Garmezy, N.(1991). Resiliency and vulnerability to adverse developmental outcomes associated with povert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ol. 34, pp.416-430.
- Garrison, C. Z. et al.(1990). A longitudinal study of depressive symptomatology in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Vol. 29, pp.581-585.
- Ge, X. J., Conger, R. D., Lorenz, F. O., Elder, G. H., Montague, R. B., & Simons, R. L.(1992). Linking Family Economic Hardship to Adolescent Distres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t*, Vol. 2, pp.351-378.
- Goosby, B. J.(2003). *The impact of poverty duration on youth behavioral and cognitive outcom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Hankin, B. L. et al.(1998). Development of depression from

- preadolescence to young adulthood: Emerging gender difference in a 10-year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Vol. 107, pp.128-140.
- Jones, D. C. & Houts, R.(1992). Parental drinking,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social skills in young adult,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Vol. 53, pp.48-56.
- Kashubeck, S. & Christensen, S.(1992). Difference in distress among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39, pp.356-362.
- Lazarus, R. S.(1976). *Patterns of adjustment*. New York: McGraw-Hill.
- Masten, A. S., Hubbard. J. J., Gest, S. D., Tellegen, A., Garmezy. N., & Ramirez, M.(1999). Competence in the context of adversity: Pathways to resilience and maladaptation from childhood to late adolescenc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Vol. 11, pp.143-169.
- McLanahan, S. & Sandefur, G. D.(1994). *Growing up with a single parent: What hurts, what help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McLoyd, V.(1998). Socioeconomic disadvantage and child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Vol. 53, pp.185-204.
- Nash, J. K. & Bowen, G. L.(1999). Perceived crime and informal social control in the neighborhood as a context for adolescent behavior: A risk and resilience perspective, *Social Work Research*, Vol. 23(3), pp.171-185.
- Norman, E.(2000). *Resiliency enhancement*. Columbia University Press.
- Norwicki, S. (1982). *Marital discord and children: Problem, strategies, methodologies, and result*. San Francisco:

Jossey-Bass, Inc.

- Obeidallah, D. A., Mchale, S. M & Silbereisen, R. K. (1996). Gender role socialization and adolescents' reports of depression: Why some girls and not othe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25, pp.775-785.
- Pollard, J. A, Hawkins, J. D. & Arthur, M. W.(1999). Risk and protection: Are both necessary to understand diverse behavioral outcomes in adolescence?, *Social Work Research*, Vol. 23(3), pp.145-158.
- Raschke, H. J.(1979). Family conflict and children's self-concept: A comparison of intact and single parent families, *Jouran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41, pp.367-374.
- Rolf, J. & Johnson, J.(1990). Protected or vulnerable. In J. Rolf, et al.,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psychopathology*.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utter, M.(1987). Psychosocial resilience and protective mechanism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Vol. 57, pp.316-331.
- Turner, S. G.(2001). Resilience and social work practice: Three case studies, *Families in Society*, Vol. 82(5), pp.441-448.
- Tweed, S. H. & Ryff, C. D.(1996). Family climate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Recollections from a nonclinical sample of adult children of alcoholic fathers, *Research in Nursing & Health*, Vol. 19, pp.311-321.
- Werner, E.(1986). Resilient offspring of alcoholics: A longitudinal study from birth to age 18,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Vol.

47(1), pp.34-40.

Wolin, S. & Wolin, S.(1995). Resilience among youth growing up in substance-Abusing families, *Pediatric Clinics of North America*, Vol. 42(2), pp.415-429.

ABSTRACT

Resilience of Adolescents who use the youth Self-Sufficiency Supporting Center

Choi, Yoon-Jung * · Lee, Si-Yeon ** · Kwon, Hyun-Jin ***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urvey the resilience of adolescents who use the youth self-sufficiency supporting center.

We made mail survey on the whole 20 youth self-sufficiency supporting center throughout the country and received 305 answer sheets, which is about 80 percent of the mail survey.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resilience has positive effect on adjustment of adolescent.

To be concretized, it reveals that internalization problem has interaction effect on locus of control, family cohesion and family support and externalization problem on family cohesion and family support. As a result, for the effective adjustment of adolescents who use youth self-sufficiency supporting center, there must be the intervention focused on resilience.

Secondly it is desirable to make use of youth self-sufficiency supporting center as a place to promote their social support and social activity participation because they have positive effect on adjustment of adolescent.

Key Words : youth self-sufficiency supporting center, family conflict, resilience.

투고일 : 11월 1일, 심사일 : 12월 8일, 심사완료일 : 12월 23일

*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Seouljongsin University

*** Incheon University